

주임신부: 김대 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코 10, 5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0/27(일) 연중 제 30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10/29(화) 연중 제 30 주간 화요일 미사(본당 20:00)
▶11/ 2(토) 위령미사 (11:00) 미사 후 묘지 방문
▶11/ 3(일) 연중 제 31 주간(본당 11:00, 공소 17:30)

◎Day light Saving time
11/3(일) 새벽 2:00 가 새벽 1:00 로 1 시간 늦춰집니다.
다음 주 부터 주일 미사 시간이 **11:30 에서 11:00** 로 변경됩니다.

◎2025 매일 미사
2025 매일 미사책 주문을 **한글 이름**과 함께 받습니다.
가격은 배송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감:11/10 이며 각, 구역장에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령의 달
▶위령미사(11/2) 봉헌하실 분은 전례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묘지방문
일시:11/2(토) 11:00 위령미사 후 본당 신부님과 묘지 방문
장소: Our Lady of the Angels Catholic Cemetery
681 Mud St E, Stoney Creek, ON L8J 3B8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구합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주일학교 - 주일학교 교사 및 보조교사(대상 Gr. 9 ~ Gr.12)를 구합니다.
문의: 대표교사 박혜영 수산나

◎ 예비자 교리 첫 모임
▶일시 및 장소: 11/3(일) 오전 9:45 부터, 정혜실

◎2025 달력 광고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길 테오필로, 이승익 다니엘, 김재익 베네딕도

◎새 가정을 소개 합니다.
6 구역: 엄준식(부) 유지민(모) 엄유나(딸) 엄로이(아들)

◎구역장 회의
미사 후 친교식사 전에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본당 30 주년 골프대회 결산
복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정기 사목회의 일정 안내- 10/27(일) 미사 후 지하 친교식 . (당일 친교식사 취소)
▶11 월 공소 세례 축일자 2 명
11/22 세실리아(이민성, 손경희)

단체 소식
◎울뜨레아 지도자 학교
▶일시 및 장소: 11/2(토) 10:00, 예수성심 성당
▶참가비: \$10(점심식사 제공)

◎셋별 Pr. 모임 시간 변경
11/3(일)부터 9:30 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은빛 모임
11/3(일) 2 차 은빛 모임이 있습니다.
주제: 노인 치아 관리 방법과 치과 보험에 관한 안내

구역모임(소식)
▶11 월 구역모임은 구역 미사로 대체합니다.
1 구역 미정 이현상 윌리엄 형제님
2 구역 미정
3 구역 미정
4 구역 미정
5 구역 11/23 토 12 시 심현숙 카타리나 자매님
6 구역 미정
7 구역 미정
▶새 구역장: 3 구역 강정숙 마리아 자매님

친교 식사
10/27: 3 구역(비빔밥 \$5/\$3)
11/ 3: 4 구역 11/10: 5 구역 11/17: 6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151 명)			
주일헌금	\$1600	교무금	\$60
감사헌금	\$	성전건립	\$230

목주 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11 월 본당 세례 축일자 (20 명)
11/ 1 폐기(조필기)
11/ 2 토마스(이응석)
11/ 3 실비아(윤은숙)
11/ 5 엘리사벳(김훈옥, 조하은, 이상은)
11/10 레오(김대현, 김은찬), 레아(차영은)
11/11 마틴(김영상)
11/16 아네스(이지우)
11/20 에드몬드(최용욱)
11/22 세실리아(김기린, 최샤니, 이옥화)
11/23 클레멘스(강민수)
11/30 안드레아(김의수, 이준규, 이종희, 이호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0/27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다희 보나 유세진 라파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11/ 3	박규혜 카타리나	최아현 베로니카 최두원 스테파노 유세진 라파엘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래 성당 주임
오용환 가브리엘 신부

헬렌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별반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헬렌켈러는 두 귀를 열고 두 눈을 뜨고도 별로 특별한 것을 보질 못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일 나에게 사흘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날은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을 보고 싶고, 둘째 날은 아침엔 먼동이 트는 태양을 보고 싶고, 저녁엔 노을과 별을 보고 싶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 일상의 삶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는 무엇을 그토록 보고 싶었길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고함을 질렀을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외쳤던 소리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원하는 것이었기에 창피나 굴욕이나 체면 따위 등 남의 이목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다가서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하고 묻자 그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티매오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었길래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청했을까?

먼저, 보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만 보면서 눈먼 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日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청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30 주일

(2024. 10. 27.)

제 1 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31,7-9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 ㄴ.2 ㄷ ㄹ-3.4-5.6(◎ 3 참조)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5,1-6

복음 환호송 2 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0,46 ㄴ-52